

AI 전문인재 모시는 기업들... 상반기 인력채용 큰 장 열려

솔트룩스·와이즈넷·마인즈랩 등 회사별로 최대 100여명 채용 진행 대기업도 복지정책 내세워 영입 경쟁

‘AI 전문인재를 모십니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전문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솔트룩스·와이즈넷·마인즈랩·하이퍼커넥트·NHN·셀바스에이아이·인피닉 등 AI 관련 기업들은 최대 100명까지 AI 개발자,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자, AI 컨설턴트 등 AI 전문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AI 개발자 중 고급 인력의 경우, 연봉이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여기에 대기업까지 가세해 영입 경쟁도 치열하다. AI 전문 기업들도 복지정책 등을 내세워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AI 기술 기반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는 오는 3월 14일까지 한 달간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 하이퍼커넥트는 올해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AI, AR(증강현실) 등과 글로벌 진출 성공 노하우를 기업 고객



지난해 11월 수원시청에서 개최된 '2020 수원시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에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진출은 물론 AI 휴먼 기반 차세대 소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으로, 이번 채용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경력직 채용은 사업, 데이터, 디자인, 개발, PM, QA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직무별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영입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자율 출퇴근제 ▲3년 근속 시 10일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제공하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 ▲최대 1억원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복지를 제공한다.

하이퍼커넥트 관계자는 15일 “올해

대규모 인재 영입을 통해 글로벌 영상 메신저인 ‘아자르’ 뿐 아니라 공격적 신규 서비스를 지속해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솔트룩스도 최대 100명의 인력 채용을 목표로 대규모 상시 채용에 나섰다.

모집직군은 ▲PM/PL ▲ML/DL 모델 응용 개발자 ▲AI 챗봇 모델링 ▲AI 솔루션 개발 ▲AI 및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웹 퍼블리셔 및 개발 ▲데이터 분석 및 통계 등이다. 솔트룩스는 직원에게 카페테리아, 호캉스, 선택적복

리후생비, 주택구매지원금, 자녀학자금, 본인 및 가족의료비 지원, 핵심인재 지원 등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AI 및 SW 기업인 와이즈넷은 AI 챗봇, 검색, 빅데이터 분석 등 사업 강화를 위해 두자리수 규모의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역량 있는 인재가 많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채용할 계획이다.

솔루션 개발 및 연구개발(R&D), 영업, 컨설팅, 기획, 기술지원, 일반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재 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며, 화상회의를 통한 면접과 온라인 인적성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와이즈넷은 상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AI 및 SW 핵심 인재를 영입해 AI 핵심 기술력 등 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마인즈랩도 AI 전문 컨설턴트를 상시 모집하고, AI 교육 서비스 기획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AI 컨설턴트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 문제를 파악해,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또 AI 교육 서비스 기획자는 컨설턴트 교육 및 아카데미 교육 교재 및 콘텐츠 제작을 맡게 된다. 마인즈랩은 복지제도로 사내식당과 카페테리아, 스톡옵션, 직책

수당, 체력단련비, 성과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NHN도 AI 서비스를 확대하며 AI·데이터 분야를 포함한 신입 전문연구요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게임 AI 개발자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이용한 게임 AI 선행 연구 및 개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며, 데이터 플랫폼 개발자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를 수집·처리·가공·전송 시스템 개발을 맡게 된다. 또 음성인식, 음성합성, 음성신호처리 알고리즘 연구 개발,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링 기법 연구 개발을 담당할 음성처리개발자도 모집 중이다.

셀바스에이아이는 자연어처리 개발자(AIR&D) 신입 및 경력 직원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자연어처리 개발자는 보이스챗봇, 자연어처리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인피닉도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및 설계, AI 학습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운영·관리를 담당할 AI 학습 데이터 가공 운영자, AI 학습데이터 수집 담당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채용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SSG닷컴, 15개 직무 경력사원 공개채용

21일 오후 11시 서류접수 마감

SSG(쓱)닷컴이 대규모 공개 채용에 나선다.

SSG닷컴은 오는 21일까지 개발 직군을 비롯해 온라인MD, 브랜딩 등 사업영역 전 부문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총 15개 직무분야에서 두 자릿수(00명) 인원을 채용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뽑는 분야는 ‘AI(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IT개발’ 직군이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개발 ▲비주얼 AI 및 자

/신원선 기자

언어 처리 딥러닝 개발 ▲딥러닝 서비스 개발 ▲웹개발 ▲검색 서버 개발 ▲검색 원부 매핑 담당 ▲시스템 개발 ▲DBA ▲보안관리 담당 등 10여개 직무가 해당된다. 이밖에 ▲온라인MD ▲고객기획(CRM) ▲브랜딩 ▲채널제휴 등 직무에서도 우수 인재 채용이 이뤄진다.

서류 접수는 2월 21일 오후 11시까지이며, 서류 전형은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1차 실무면, 2차 임원직 면접을 진행한다. 지원 직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우대 사항은 SSG닷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진 ‘PK마켓 추진’... 美 출장길 올라

(신세계그룹 부회장)

LA에 그로서리점 매장 오픈 앞두고 사업현황 점검, 유통전반 등 살필 듯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년만에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상반기 출점이 예정된 PK마켓 등 미국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5일 신세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달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해 현지 사업을 점검중이다. 정 부회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1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통전시회 ‘NRF2020’에 참석한 이후 1년만이다.

이마트는 2018년 PK리테일홀딩스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그룹

통해 현지 유통기업 굿푸드홀딩스를 3075억원에 사들였다. 이듬해엔 현지 식품소매점 뉴시즌스마켓을 3236억원에 추가 인수해 몸집을 키웠으며 굿푸드

드홀딩스의 브리스톨팜즈, 레이저에이커스, 메트로폴리탄마켓, 뉴시즌스마켓 등 현지 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유통매장은 52개에 달한다.

이마트는 연내 LA 시내에 그로서리점(Grocerant, Grocery와 Restaurant의 합성어) 매장 PK마켓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미 각종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다. 이마트의 PK마켓은 현지 중산층이 주요 타깃이다. 아시아 식재료를 구매하고 즉석요리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매장으로 꾸릴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막바지 단계인 PK마켓 사업 현황을 살피고, 미국 유통 사업 전반도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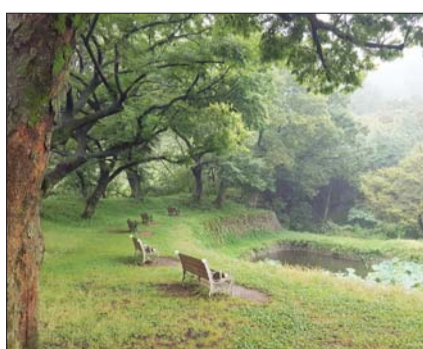
‘비대면관광지 100선’ 성공적 사례 평가

관광공, 핏투르서 우수사례 선정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시대의 대안 여행으로 내놓은 ‘비대면(인택트) 관광지 100선’ 마케팅이 해외로부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관광박람회인 핏투르(FITUR)는 한국관광공사의 코로나 시대 국내관광 활성화 전략사업인 ‘한국의 비대면관광지 100선 마케팅’을 액티브 투어리즘 컴퍼티션 국제부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980년부터 개최된 핏투르 관광박람회는 전세계 165개국 26만명이 참여하는 관광분야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다.



비대면관광지 100선(대구 사진전 주막촌). /한국관광공사

공사 관계자는 “비대면관광지 100선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여행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자릿수 증가

산업부, 1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이 모두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1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9%, 내수는 18.4%, 수출은 2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 생산은 한국GM과 기아차 임단협 타결에 따른 생산 정상화와 내수·수출 동반 증가 등 수요 호조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31만4190대가 생산됐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 증가율로 전년 월평균 내수보다 7.5%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르노삼성엔 QM6 등 주력모델 내수 부진 등으로 생산이 11.5% 감소했다.

내수는 그랜저, 투싼, 카니발 등 신차 효과가 지속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된 효과, 영업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을 받아 13만7692대 팔렸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전년 연간 판매순위 1위였던 그랜저(8081대)였고, 2위 카니발(8043대), 3위 쏘렌토(7480대), 4위 투싼(6730대), 5위 아반떼(6552대) 등 국산차가 베스트 셀링카 톱

5를 모두 차지하는 등 국산차 11만5375대가 팔렸다.

수입차의 경우는 유럽계와 일본계 브랜드가 부진한 가운데,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7.3% 증가한 2만2317대 판매됐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증감률은 독일차가 +46.6, 일본 -21.6, 미국 -1.8, 영국 +0.4, 스웨덴 +8.9, 이탈리아 -24.1, 프랑스 -47.2 등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시장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의 점진적 회복세 등으로 19만2322대 수출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특히 SUV를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확대 등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대수(+29.5%)보다 더 크게 증가(+40.2%)한 40억달러를 달성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